

이인기 원장과 함께하는 실전 수의치과(35)

Plaque를 발견하는 방법



이인기
튼튼동물병원 원장
medivetmen@hanmail.net

Q. 지방에 있다 보니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힘들고, 치과 쪽은 더구나 많은 정보가 없어서, 항상 수의치과에 대해서 목말라있는데, 이원장님의 치과 연재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대수회지가 오면 이원장님의 치과원고만 오려서 따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과월호에서 계속 중요시하는 것이 플라그인데, 실제로 플라그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예전에 힐스에서 선물로 받은 파란색이 나오는 펜라이트 같은 것을 받았는데, 이것은 치석만 보일뿐 플라그는 확인이 힘들었습니다. 이에 플라그 확인법과 사용법도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A. 대수에 연재되는 제 원고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니 저도 많이 뿌듯합니다. 저 역시도 많은 선생님들이 질문 주신 것을 해결해 가면서 많은 공부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것을 같이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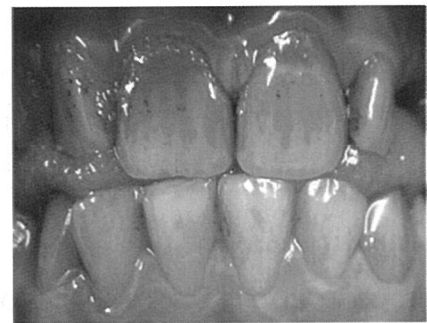
치태 확인시약

치과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문제의 시작이 치태(plaque)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동물병원에서는 아직 플라그 확인검사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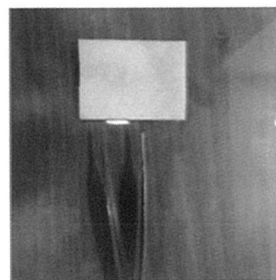
예전에 힐스에서 나누어준 파란색의 빛이 나는 펜라이트

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으로 보면 치태보다 치석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치태를 확인 할 수 있는 disclosing solution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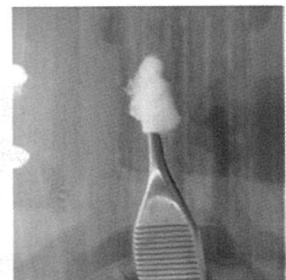
Disclosing solution이란 아래와 같이 치아에 도포를 하면 치태가 존재하는 부분은 핑크색으로 염색이 되어서 플라그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보호자도 같이 볼 수 있어서, 보호자교육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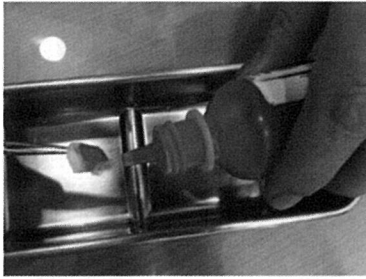
Disclosing solution검사 방법



① 핀셋과 절단솜을 준비한다.



② 핀셋에 절단솜을 말아준다.



③ 절단술부분에 Disclosing solution을 적셔준다.



④ 치아에 Disclosing solution을 도포해준다.



⑤ 치아에 도포한후 washing후의 모습-플라그가 존재하는 부위는 핑크색으로 염색이 되어있음

위와 사진과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플라그의 존재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Disclosing solution을 치아에 도포 후에 입안을 헹구지만, 강아지나 고양이는 본인들이 치아에 도포 후에 치아를 혀로 핥기 때문에 washing을 안해주어도 됩니다.

치태확인 시약의 성상

(Disclosing tablet과 Disclosing solution 차이)

치태확인 시약의 성상으로는 tablet 형태, 즉 알약 형태와 solution 형태, 즉 용액 형태 2가지로 아래 그림과 같이 출시



Disclosing tablet - 알약타입



Disclosing solution - 용액타입)

가 됩니다. 사람의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투약하므로 문제가 없지만, 강아지에게서는 이러한 것이 물리적으로 힘들므로 치태확인 시약의 성상은 tablet 형태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solution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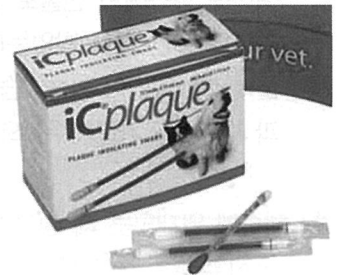
동물용 Disclosing solution

플라그의 중요성은 인의든 수의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동물용으로도 이미 십여년 이상 전부터 출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통상의 문제로 베타제품군이 수의사들에게 외면이 되었지만, 베타의 CET제품군이 수의치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의사로서 아쉬운 점은 이러한 좋은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베타에서 유통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의치과에 사용되는 많은 제품들을 국내에 소개시켜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베타 First-Sight



iC pla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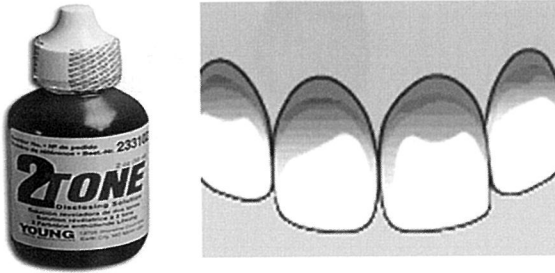
몇 년전에 모회사에서 1회용 Disclosing solution을 수입을 하였는데,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Disclosing solution에 대한 수의사의 인식이 부족했었고, 가격이 인의 것이 15,000원이면 백번이상 검사할 수 있는 가격인데 비해서 수의용은 가격이 1회용이라서 비쌌기 때문이었습니다.

추천하는 Disclosing solution

요즘에는 위에서 설명 드린 것보다 발전이 되어서 Two tone Disclosing solution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Two tone Disclosing solution이란 치아가 한가지 색으로 염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그림과 같이 2가지 색으로 염색이 되어서, 어느 부분이 최근에 플라그가 침착된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오래된 플라그인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 Disclosing solution(15,000원)과 Two tone Disclosing solution(15,300원)의 가격차이는 불과 3백원 차이이므로 구매 시에는 꼭Two tone Disclosing solution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16년 12월 21일 기준).

아울러, 수의용이나 인의용이나 성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원장님들은 꼭 동물용을 고집하는데, 인의용에 비해서 가격만 비싸고, 1회용 포장이라서 검사원가를 따지자면 10배 이상 동물용이 비싸니, 굳이 같은 제품을 수의용으로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Disclosing solution의 사용

특히 고양이 치과에서는 Disclosing solution의 사용은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치주염이 심하고 입안에 출혈이 있을 때, PDS를 사용하면 호전이 되었다가 PDS를 중지하면 다시 재발되는 경우 모두가 LPGS는 아니라는 것을 전월호에서 기술하였듯이, 고양이 치과질환에서의 플라그의 확인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플라그는 육안적으로 확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Disclosing solution의 중요성이 더 대두가 됩니다.

아울러 비용면에서도 1~2회검사로 시약의 원가는 상쇄가 되므로 병원에 진단과 경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검사라 아니 할 수 없고, 보호자 교육 측면에서도 직접 보호자와 눈으로 보고, 특히 폴리싱의 경우 당연히 스케링 후에 시술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교육시 어려움이 많은데, 각각의 병원에서 Disclosing solution을 도포 후에 폴리싱으로 플라그를 제거하는 장면도 폴리싱의 중요성을 보호자에게 각인 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

